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16. 2. 26(금)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학위수여: 학사과/ 행사: 총무과	문의	학사과(02-880-5033) 총무과(02-880-5093)

제 목: 서울대학교 제70회 학위수여식

- 서울대학교는 제70회 학위수여식을 2016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496명, 석사 1,786명, 박사 688명 총 4,970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지난 70년간 서울대학교는 인재양성과 지식창조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하였다” 며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난관과 역경을 헤쳐 나갈 지혜를 제시하였고, 격동의 시대에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의 선두에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사회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며 “관성을 깨는 용기와 변화를 읽는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진정한 보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1>
- 학위수여식 축하 연사로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건축설계 회사 팀하스 하형록 회장을 초빙하였다. 하형록 회장은 미국에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기업의 본래적 소명에 충실한 것을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립, 암협회 및 심장협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무 수행에도 주목하여 실

천해왔다. 하형록 회장은 축사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헌신적 노력, 이타적 희생 등을,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서울대인이 갖춰야 할 가치로 창조적 지성과 겸손, 봉사하는 실천적 지성을 강조했다. <축사 자료 별첨2, 3>

□ 서울대 내 외국인학생회(SISA) 회장을 맡는 등 학생들간의 교류 활동 확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공헌활동에 실천해온 정치외교학부 오강바야르 학생(Uuganbayar, 몽골)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는다. 전체 학위수여식 행사 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한다.

□ 주요 식순

-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하형록 팀하스 회장)
학위수여, 상장수여, 졸업생 대표 연설(사회대 오강바야르), 축가

* 붙임

-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하형록 팀하스 회장),
졸업생 대표 연설문(정치외교학부 오강바야르)

【별첨1】 총장 학위수여식사

「제70회 학위수여식」 식사

2016. 2. 26.(금) 14:00

서울대학교 체육관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수년 간 학업의 연마 끝에 영예로운 졸업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신 학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지도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도움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올해는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학문창달의 기치 아래 국립 종합대학교로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간 서울대학교는 인재양성과 지식창조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척박했던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품었던 미래에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였던 혼신의 노력에 새삼 경탄하게 됩니다.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도 선현들은 학문에의 열정을 깊이 간직하면서 더 자유롭고 더 잘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을 일궈 나갔습니다.

이 모든 꿈과 지혜가 어우러져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개교 100년, 150년을 맞이하는 그날에 우리의 후배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려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쌓아나가야만 합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졸업생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난관과 역경을 헤쳐 나갈 지혜를 제시하였고, 격동의 시대에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의 선두에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생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역사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전통과 교육 환경 속에서 지덕체(智德體)를 연마해 왔습니다. 각고면려(刻苦勉勵)의 노력으로 각기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지식함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독창적인 학위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우들과 우정을 쌓으며 인격을 연마했고 하얀 밤을 지새우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설계를 모색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헤쳐 나가야 할 미래는 결코 밝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난관이 여러분의 앞날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지혜, 패기와 열정을 통해 그러한 불확실성에 과감하게 맞서 나감으로써 난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때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十二夜』에서 “위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함을 성취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대함이 맡겨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결코 두려움과 방관, 냉소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마땅히 짊어져야 할 위대한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위대함은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위정자가 되어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위대함은 몇몇 사람들의 영웅적인 생각과 행동이 아닙니다.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발휘하는 작은 위대함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지

위를 가지고 일하던 작은 말과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마땅히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여정의 출발선 앞에 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적 도전은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는 물론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의 미래,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근원입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밖에서 보는 서울대학교 간판이라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꿈을 버리거나 줄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사고, 단편적 지식을 극복하는 근본적 지성,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할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인 '선(善)한 인재'입니다. 냉철한 지성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중요한 일과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고, 큰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성을 깨는 용기와 변화를 읽는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진정한 보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전통은 졸업생 여러분에 의해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별첨2】 축사1 서정화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과 모교의 교직원 여러분. 후배들의 壯途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며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서정화입니다.

勉學의 나날을 거쳐 졸업의 기쁨을 얻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곳에서의 학업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지만 험난한 학업의 여정을 헤쳐 온 여러분들은 이제 국내 최고의 지성인이 되어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은 개인을 교육하는 기관인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공적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넓은 영토도 풍부한 자원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대학에서 양성한 우수한 인재들의 힘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서울대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의 중추에서 민족의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분단의 위기가 증대되고 국가간 경제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이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협력하여 난국을 타개해야 할 상황임에도 사회를 유지시켜왔던 가치들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내는 동력은 능력과 겸손을 겸비한 지도자의 진심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의 파편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가지되 청빈과 겸양으로 국민에게 진정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지도자 없이 국가가 단결했던 역사는 없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서울대인이야말로 이러한 성품을 연마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회남자의 말처럼, 강이 모든 계곡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며 오직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위로 오를 수 있습니다 모교와 조국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강을 지나 바다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성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산업화, 민주화 등의 이념들은 이제 더 이상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납득시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사상적 지표를 창출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창조적인 지성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는 것 외에 달리 없습니다. 오늘날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대학의 연구실은 고고한 상아탑이라기보다는 경제전쟁의 최전선화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연마한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지성으로 발전해나가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성장동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대인이 실천해야 할 가치로서 앞서 거론한 겸손과 지성에 이어 봉사의 정신을 계속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위대한 지성은 공동체를 향한 사명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빛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자신의 지성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사명감은 하나가 됩니다. 것처럼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적 지성인이야말로 서울대인이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성낙인 총장님께서 서울대학교가 배출해야 할 인재상으로 제시하신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와 합치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덧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제 마음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혹독한 학문적 훈련을 이겨낸 자신감을 되새기며,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교정에서 쌓아올린 우정과 인연을 아름답게 가꿔 화목하고도 강력한 지성인 공동체를 만들어가십시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들로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120년간 서울대인이 공유해온 가치와 전통이 여러분들을 통해 면면히 계승되리라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별첨3】 축사2 하형록 팀하스 회장

동사로 꿈꾸라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졸업의 기쁨을 맛보고 사회로의 희망찬 첫발을 내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노력,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의 후학 양성에의 열정, 그리고 부모님들의 간절한 정성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기에 더욱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 어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행보가 여러분들 삶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기에 가슴 벅차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생에서 성공하고 참된 승리를 거두고 싶다면, “자신의 꿈을 명사로 표현하지 말고 동사로 표현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의료진이 되고 싶다면 의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치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십시오.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음악가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표현하십시오.

명사는 정지되어 있지만, 동사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명사로 표현된 꿈은 자신의 자부심만을 키우지만, 동사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게 합니다. 명사로 꿈꾸는 사람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 동사로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 결국 참된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 부와 명예를 거두는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자비로운 의사가 됩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현란한 기교를 뽐내는 음악가가 아니라, 관중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음악가가 됩니다.

지금 사회는 이렇게 동사로 자신의 꿈을 표현하고 그 꿈을 실천해 나가는 인재를 찾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도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동사로 꿈을 표현하며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자신의 성공을 일구어 낼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을 동사로 표현하고 선한 인재의 길로 전진해가다 보면,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희생이 참으로 값진 것이며 그 참된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1년전...그리고 16년, 저는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 “다시 새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 목표를 두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명사형의 꿈을 위해 살아왔지만, 죽음의 문턱에 놓이게 되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동사로 표현하고 제 결심을 다졌습니다.

때로 동사로 표현된 저의 꿈은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선한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희생은 저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정작 이식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심장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 심장을 어떤 젊은 여자 환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환자는 이틀 내로 심장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이며,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이 제가 이식 받을 심장과 똑같은 유형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죽는 사람이 50 퍼센트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심장을, 다른 환자에게 내주는 것은 제게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다는 제 결심을 실천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도 그 후 상태가 좋지 못한 심장을 이식 받고 6년을 살았고, 다시 두 번째 심장이식수술을 받아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축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심장에 부담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담당의사가 말하기를 제 두 개의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 그 혈관들을 뚫어야 하는데, 만약 그 시술이 다시 실패할 경우, 오직 심장 이식 수술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일평생 단 두 번의 심장이식수술밖에 허용되지 않기에, 이미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제게 그것은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십여 년 전 제게 맞는 건강한 심장을 다른 여성 환자에게 기꺼이 기증했고 그 후 상태가 좋지 못한 심장을 이식 받았기 때문에, 비록 제가 이미 두 번의 심장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의 경우에는 한번 더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편한 길을 따라 명사로 표현된 사회적 위치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동사로 표현하고 그 꿈을 쫓아 어렵고 힘든 길로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꺼이 이 후자의 길을 택했고 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살겠다고 제 꿈을 동사로 표현하고, 그 꿈을 정직하게 실천하고자 한 희생이 제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을....제 생명을 기꺼이 내주었더니, 이제 제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값진 축복의 삶과 성공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동사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참된 희생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형록 드림

【별첨4】 졸업생 대표 연설

제70회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4,970명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오강바야르입니다. 유학생생활을 하며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헤치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그 중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9월에 한국말은 “김치“라는 단어 밖에 모르는 한 남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의 천국, 몽골에서 왔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끼면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어른이 되었으니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제가 받은 장학금으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도 모르는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였습니다. 찾을 수 있는 일은 단지 공장에서 하는 단순노동, 이삿짐 옮기는 일, 호프집 서빙 등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제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떤 어려움에서든 부정적인 것을 찾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에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보통 언어교육원 6급까지 다녀야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데 저는 2급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후 저는 제가 먼저 경험한 한국에서의 문화적인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돕고 싶어 외국인학생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외국인학생회는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먼 고향을 떠나 온 외로움

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학생회는 이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학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학생들은 한국유학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몽골유학생으로서의 책임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온몸으로 느낀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한국 학생 중에서도 소위 공부벌레라고 부르는 서울대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저에게 또 다른 인생의 도전이었습니다. 평상시 동아리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며칠 밤을 새가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본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며 책임감을 잃지 않는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뜨거운 열정과 인간의 가능성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니깐 저도 최선을 다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물론 숫자가 쓰여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그것보다 이상이었습니다. 저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책임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저처럼 외국인한테는 더 큰 책임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국 몽골 유학생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몽골인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처음 한국에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도전이 다가오겠지만 다가올 어려움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보고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 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무엇을 하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졸업생 대표 오강바야르